

# 한양김춘수프로젝트



한양김춘수프로젝트 결과 (출처 : 뉴스H)

[한양브랜드서포터즈](#) 2기가 2014년 진행한 활동이다. 교내 캠퍼스 중 이름이 없어 불편한 장소를 선정해 새롭게 이름을 붙이는 프로젝트이다.



한양김춘수프로젝트 결과 2

## 진행과정

1. 장소공개
2. 댓글응모
3. 후보선정
4. 심사투표

## 5. 최종확정



한양김준수프로젝트 결과3

## 결과

1. 건반로 (제안 : 박지호)
  - 계단의 모습이 옆으로 길면서, 계단 폭이 길고 짧음의 변화가 있어 마치 피아노의 건반처럼 보인다
2. 한그루터 (제안 : 김미혜)
  - '한양대 그루 씬터'의 줄임말로, '그루'는 밑바탕이나 기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.
3. 의대골목 (제안 : 우승훈)
  - 병원가는 지름길로 건물과 화단사이의 폭이 좁고 해가 지면 어둑어둑해 실제 골목 느낌이 많이 난다.
4. 사자계단 (제안 : 이서연)
  - 본관 앞 사자상 바로 뒤에 위치하며, 행인들은 대부분 사자상을 지나 이 계단을 통해 이동하게 된다.
5. 12042 (일이공사이) (제안 : 박지훈)
  - '1'공학관과 '2'공(0)학관사이(42)에 있는 곳이므로 이 숫자들을 조합해서 공대답게 수치로 표현했다,
6. 하이테크 스퀘어 (제안 : 김지수)
  - 신소재공학관과 과학기술관 둘다 공학 관련 건물이니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장소의 의미로 표현했다
7. 쉼표로 (제안 : 박경훈)
  - 음대 건물 뒤이기 때문에 지나가다보면 저절로 음대생의 연주곡을 들으면서 쉬어가게 되므로
8. 백남정원 (제안 : 허은미)
  - 백남학술정보관 3층에 위치한 테라스에서 맞은편 HIT의 풍경과 함께 조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므로
9. 조삼모사길 (제안 : 이치호)
  - 어느 쪽이 빠를까 고민, 막상 가보면 그냥 운동장 가로지르는게 정답
10. 하이로드 (제안 : 안상근)
  - 경사가 급해(high) 다리에 부하(load)가 많이 걸리는 한양(HY)의 대표 길(Road)을 중의적으로 표현
11. 애지뒤틀터 (제안 : 강정은)
  - 애지문 뒷편에 있어 잘 보이지 않지만, 앉아서 쉴수도 있고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숨은 장소
12. 노천길 (제안 : 박경훈)
  - 한양대의 유명한 노천극장을 가는 길이자, 노천극장 정면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연결된 길이므로 알기 쉽게

## 교내 매체

- <뉴스H> 2014.12.09 [facebook] 277. 한양김춘수프로젝트, 드디어 장소명 확정